

아파트 텃밭, 스트레스 낮춰준다

농진청 개발 프로그램, 주민들의 이웃관계 개선 효과도 참여 주민 정서적 친밀감·공동체 의식 참여전 보다 ↑ 스트레스 지수는 11% ↓... 수확물 나눔 등 과정이 큰 역할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는 텃밭 활동이 주민 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0.1%를 넘어섰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아파트 텃밭 프로그램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웃관계를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연구진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한 곳에 약 300㎡의 텃밭을 마련하고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18회에 걸쳐 주민 2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 주민의 '정서적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은 참여 전보다 각각 10%, 9% 높아졌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의상과 인사법을 만들고, 역할을 나눠 텃밭을 관리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원생의 텃밭 가꾸기를 돕는 한편, 텃밭에 핀 꽃으로 만든 장식·공예품과 채소 등 수확물을 이웃 주민들과 나눴다. 이런 과정이 텃밭 활동 구성원뿐 아니라 아파트 내 다른 주민과의 상호작용, 정서적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텃밭 활동이 단순한 농사를 넘어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 지향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아파트 텃밭이 개인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즐거움을



농촌진흥청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한 곳에 약 300㎡의 텃밭을 마련하고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18회에 걸쳐 주민 20여 명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는 공간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명일 도시농업과장은 "아파트 텃밭이 개인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즐거움을

주는 공간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상생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 모집

중기중앙회, 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포스코와 추진하는 2020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주)포스코와 함께 진행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 간 총 2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500개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약 1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유관기업(검사·키트, 마스크, 방호복 등 방역물품 제조기업) 및 피해기업에 대해 우선선정 등 우대지원 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지원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 내에서 최대 6천만원 ~ 1.8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 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보험료 인하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등의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포스코ICT, 포스코인재창조원 등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스마트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인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화 역량강화 컨설팅'은 포스코 고유의 생산현장 혁신기법인 QSS(Quick Six Sigma)를 바탕으로 재고관리·생산라인 자동화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진단과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제도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김윤상 기자

계좌이동 서비스

고객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에어팟 프로 등 경품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지난 5월 26일부터 확대 시행된 계좌이동 서비스를 맞이해 오는 30일까지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5년도 7월 1일에 금융결제원에서 첫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NH농협은행 등 18개의 제1금융권과 7개의 제2금융권이 참가하고 각 금융권내 계좌이동만 가능했다.

이번 이벤트는 다른 금융기관 출금 계좌(농·축협 제외)로 등록된 자동납부(계좌간 자동이체 변경 제외)를 농협은행 계좌로 변경하고 농협은행 인터넷/스마트 뱅킹·윌뱅크로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이스청소기, 에어팟프로,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리그램하는 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실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장수가게 발굴·장수 비결 교환

전북중기청,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 출범

백년가게 선정시 금융 우대·홍보 등 지원

도내에 백년가게로 선정된 27개 업체가 8일 협의회를 결성하고 장수가게 발굴과 장수하는 비결을 교환하는 등 사업의 지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백년가게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2020년 제1회 소상공인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백년가게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발굴해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1일 백년가게 대표가 모여 사전간담회를 진행해 선출한 임원을 포함한 16개 업체가 참석했고, 전북지역협의회의 역할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예비)창업자와 재기소상공인에 멘토링을 통해 창업과 성공노하우를 공유하고, 소상공인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 발굴과 지속가능한 점포경

영 모색 등 성공모델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프로보노단을 결성해 경영성공 및 위기극복 사례를 예비 창업자·창업자·재기소상공인 등에게 공유하고 멘토링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0년 이상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수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통해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백년가게'를 선정해 오고 있으며, 전북지역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곳이 선정돼, 현판식까지 마친 바 있다.

선정된 백년가게에 대해서는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 혁신역량 강화교육과 금융 우대, 홍보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안남우 전북지방중기청장은 "우리지역에 소상공인의 리더스클럽인 백년가게 전북지역협의회가 결성됨으로써 자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비)소상공인들에게 경영노하우를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기원, 농작물

우박피해 최소화 앞장

전북도농업기술원(김학주 원장)은 지난 6일 동부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내려 남원, 무주, 장수 일부지역에 사과, 고추 등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약제 살포와 생육 회복을 위한 농작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박 피해를 받은 농작물은 상처부위를 통해 병원균의 침입이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 살균제를 5~7일 간격 1~2회 살포해 주고 생육이 부진한 포장에는 요소를 물 20리터에 40g을 녹여 5에서 7일 간격으로 1~2회 엽면시비를 하여 생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수의 경우 피해가 심한 나무는 새 가지들 최대한 확보하여 내년도 주지로 이용하며 적과를 하지 않은 포장은 피해과를 제거해 충실한 과실을 남겨두고 숙이주기를 해주고 찢어지거나 손상된 봉지는 새로 씌어 주어야 한다. /익산=장영원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내달 31일까지 '국민연금 공모전'

공단, 수필·홍보 아이디어 등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민연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수기와 수필, 홍보 아이디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모전은 지난 1992년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전'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로 16회를 맞았

다. 작년까지는 가짜, 수급자 등으로 참여 자격에 제한을 두었으나 올해에는 누구나 미래의 가입자,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전 국민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

공모 주제는 △내가 경험한 국민연금 이야기(수기)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나의 미래(수필) △제도의 필요성과 장점을 잘 알릴 수 있는 방안(홍보 아이디어) 등이다. 공모 형식은 수기·수필의 경우 A4 2매 이내, 홍보아이디어는 A4 1매 이내로 공모전 홈페이지(www.국민연금공모전.com)에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한전 남전주지사, 동부보훈지청과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한전 남전주지사(지사장 김선안)와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주영생)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8일 전주시 효자동2가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김모 어르신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한전 남전주지사는 전북동부보훈지청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버계층 국가유공



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건강개선·사회적 관계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및 노인 복지 보장, 한국전력공사 업(業)특성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